

이제 합격 당락은 독해! 왜 이유진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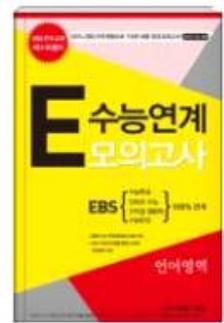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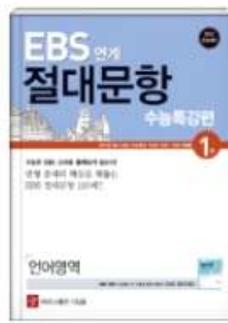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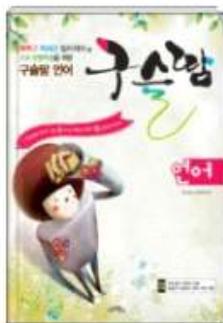
1. 문제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가르쳐야 한다.

수능을 보았다면 누구나 이유진의 교재를 거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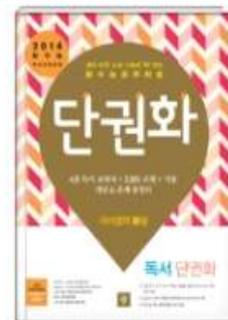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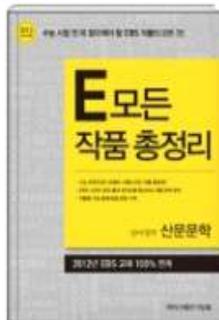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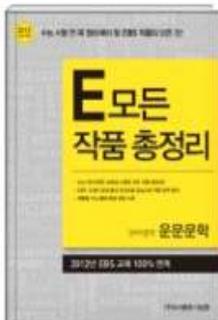
10년간 수능 시장에서는 **출제자로 활약한 강사**이다.

(EBS 수특 / 자이스토리 / 디딤돌 E 연계·단권화 시리즈 책임 출제진 / 메가박스 EBS 분석노트 기획 및 대표저자 / 메가스터디 재수종합반 교재 출제진 / 꿈틀 EBS 모의고사 / 구슬땀·완소국 국어능력인증 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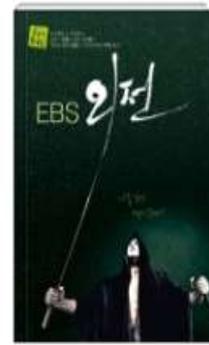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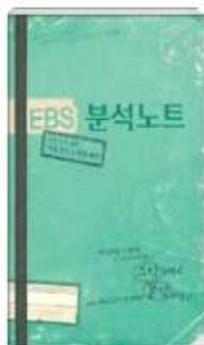
2008 특목 구슬땀 언어 2008 자이스토리 언어 2012 E-절대문항 시리즈 2012 디딤돌 E 모듬 시리즈



2012 디딤돌 E 모듬 시리즈 2012 디딤돌 E 모듬 시리즈 2012 디딤돌 E 모듬 시리즈 2013 디딤돌 단권화



메가박스 EBS 분석노트 A 메가박스 EBS 분석노트 B 메가박스 EBS 외전 A 메가박스 EBS 외전 B



2. 독해를 못하는 사람의 사고를 이해하는 사람이 가르쳐야 한다.

이유진은 모든 질의응답에 직접 답변하며 수험생들이 틀리는 이유를 연구하고 이해한다. 미리 어떤 실수를 할지 알고 그 함정을 피하는 법을 알려주는 강의를 한다.

* 수강평:

제가 들었던 어떤 비문학 강의보다 명쾌하고 논리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기존 다른 비문학강의는 답에 끼워 맞춘 해설 같고 강의를 수강했음에도 실력이 늘지는 않는 것 같아 강의를 듣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알고리즘 강의를 수강하면서... 불가능한 말이지만 정말로 **저만 듣고 싶은 그런 강의**였어요. 이유진 교수님의 독해 알고리즘은 말 그대로 알고리즘입니다. 저는 비문학에 감각에 없는 사람이었고 들쭉날쭉한 정답률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강의를 듣고 **읽는 방식의 문제점도 찾을 수 있었고** 또 답을 맞힌 문제이더라도 **답을 찾아가는 더 정교한 알고리즘**은 무엇이며 그 알고리즘의 차이 때문에 **내 정답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강의**였습니다. 심지어 답에 대한 근거만 명확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학생들이 하는 생각의 오류도 모아서 매력적인 오답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때문에 **매력적인 오답과 정답의 차이**도 설명해주셔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원래 대부분은 4개의 선지 중에 2개는 소거되고 2개가 고민되는 상황이 가장 많이 발생하니까요. 고등학생 때부터 아니 적어도 올해 시험을 준비하던 작년 초부터 만났다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감사한 마음에 이런 후기도 써봅니다. 유진 쌤 감사합니다~!

3. 독해 능력이 발달하는 순서대로 배우고 훈련해야 한다.

독해알고리즘은 7년간 수능 국어 영역 4-5등급의 수험생들을 바탕으로 독해 발달 과정을 연구하여 만든 교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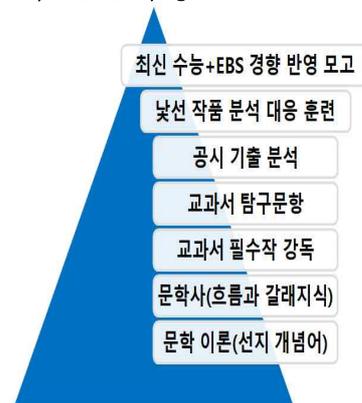
무작정 풀면 늘겠지? 아니오. 절대 늘지 않습니다.

발달 순서에 맞게 적절한 난도의 예시>예제>기출문제>고난도연습문제 이렇게 훈련해 나가야 합니다.

비문학 발달과정 ▼



문학 발달과정 ▼



* 수험생들의 독해 고민에 대한 이유진 교수님의 사이다 답변

Q. 난독증인가 봐요. 평소에도 글 읽는 것 자체에 집중하기가 힘들어요.

‘난독증’ 들어보셨나요? 하지만 자신이 ‘난독’인 것 같다고 저를 찾아온 학생들의 대부분은 ‘난독’이 아니었어요. 텍스트를 읽는 것 자체를 싫어하거나 정보의 중요도를 파악하는 것에 피로도를 심하게 느끼는 스타일이었죠.

글을 즐기며 읽을 수 있는 나이에 독서를 멀리하고 자란 뒤에 목적(수능)을 가지고 빠른 시간에 억지로 글을 읽어내는 훈련을 강요 당하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집중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중’이라는 것이 의지를 가진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 펜터치가 답이에요. 제 수업에서 비문학 펜터치를 배울 거예요. 손을 따라가다가 집중을 저절로 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공부는, 힘들게 하지 말고 열심히 하는 것이다. 알죠?

Q. 이해되지 않는 문장은 반복해서 읽어도 되나요. 아니면 읽어도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는 건가요? 어려운 지문은 문제 풀다가 다시 지문으로 돌아와서 읽는 횟수가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죠?

이해되지 않는 문장이 나타나면 그 문장 자체가 아니라 앞뒤 맥락을 다시 보셔야 해요. 그 문장 자체를 반복해서 읽는다고 이해가 될 리는 없죠. 같은 정보일 테니까요. 제가 지문을 다시 읽지 말라는 것은 전체적인 반복 읽기를 얘기하는 것이지 일정 부분에서 앞뒤를 다시 보는 것은 금지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풀다가 다시 지문으로 돌아와서 읽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애초에 전략을 가지고 지문을 읽으면서 문제에 필요한 것을 다 구했어야 합니다. 펜터치된 부분만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문제에 답을 알 수 없어서 지문을 다시 찾았다는 것은 뭔가 잘못했던 거죠. 이렇게 하면 반드시 시간이 모자라게 되어 있어요.

Q. 작년처럼 어려운 지문이 나오면 읽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 어려운 비문학 지문에는 여러 유형이 있죠. 철학 지문처럼 관념적인 말을 주로 활용해서 어려울 수도 있고, 과학이나 기술이나 경제같이 정보 자체가 낱설고 양이 많을 수도 있고요. 시험 전에 해결할 수 있는 지문의 난도를 최대한 올려놓은 것이 좋겠죠? 기출 수준 이상으로요. 제가 독해 모고 문항을 난도 높게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아직 독해 실력이 없는데 억지로 읽어 내려간다고 해서 이해되지 않아요. 성실하게 요약하면서 무엇이 무엇을 수식하는지, 그래서 정말 전달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정보의 중요도 판단을 끝없이 해야 합니다. ‘펜터치’ 훈련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지문의 난도를 올릴 수 있어요.

평소에도 기출로 훈련할 때, 처음 풀 때 연필로 펜터치하고, 채점한 뒤에 다시 정답 근거로 활용된 부분들을 색깔펜으로 펜터치해 보세요. 무엇을 놓치고 지나갔는지 어떻게 읽었어야 더 효율적일지 보일 거예요. 이 훈련을 ‘이중 펜터치’라고 합니다.

Q.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치려고 하는데 너무 많이 쳐서 요약이 안 됩니다.

밑줄을 너무 많이 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도 판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다 치면 결국 안 친 것이나 다름 없으니깐요. 결국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을 내릴 기준을 몰라서 그래요. 한 문장 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찾는 것부터, 펜터치 훈련 저랑 함께 해요.

Q. 비문학을 접했을 때 경제나 인문 지문만 나오면 겁을 먹습니다.

본인의 약점을 이렇게 확실히 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경제나 인문(아마도 철학 지문을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이 약하다는 것은 지문을 읽을 때 앞에 나온 내용을 뒤에 이어지는 정보와 연결짓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접속부사나 지시어(이, 그, 저) 활용 훈련을 해보세요.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잠시 독해 속도를 늦추시고 위에 있는 정보에서 뭘 끌어다가 다시 써야 하는지 확인하며 독해를 진행하세요.

Q. 독해에 시간을 많이 써서 다른 문제들을 못 풀 지경입니다. 잘 안 풀리는 문제가 있으면 다른 문제가 눈에 안 들어와요.

독해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해결되지 않는 문항에 대한 집착 때문이라는 거죠? 지문 자체를 읽는 속도가 느린 것은 바른 독해법을 배운 뒤에 훈련을 양적으로 하는 것이 답이라면, 해결되지 않는 문항에 대한 집착으로 느껴지는 거라면 유형 해법(문항 유형 = 발문 유형)을 배우셔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약한 유형이 있다면 그 유형을 집중 공략하면 되고 그것이 잡히지 않는다면 전체적인 추론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니 한번 틀린 문제들을 다시 모아 해설을 직접 써보세요.

Q. 저는 수능 때부터 비문학 독해는 잘하는데 문학을 더 많이 틀려요.

문학에서만 틀린다면 이유가 3가지 있죠.(비문학 텍스트 분석에 문제가 없다는 가정하)

1. 낯선 작품에 대해 초벌 분석을 할 수가 없다.(비문학처럼 정보를 다 주지 않으니)
> 저랑 같이 했던 현대시 방법론을 활용해서 낯선 현대시 메뉴얼 분석을 하고 해설지에 제시된 작품의 주제를 자신이 만든 주제와 비교해 본다.

2. 발문이나 보기에 의거한 작품 분석을 하지 않는다.
> 지문을 읽을 때 발문이 원하는 바와 무관하게 주관적으로 느끼며 읽고 문제를 풀 때 다시 생각을 하면서 선지에 맞춰 합리화하는 습관을 버리세요. 발문과 조건 보기(표현상 특징)는 먼저!

3. 선지에서 그럴 수도/아닐 수도 선지에 연연한다.
> 긍정 질문인지 부정 질문인지에 따라서 정답은 '당연히 그렇다'와 '절대 그럴 수 없다'입니다. '그렇게 볼 수도 아닐 수도 있다'에 연연하지 마세요.